한국 나노기술 세계4위 수준 진입

Lux Research, 기술수준·기술개발력 양호 … 정부 집중지원으로

우리나라의 나노기술(NT)이 최근 미국과 일본,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.

과학기술부에 따르면, 뉴욕에 본사를 둔 NT 조사분석기관 Lux Research가 최근 14개국을 대상으로 국가투자와 정부·대학 나노센터의 규모와 질, 기업 연구개발(R&D) 투자, 국가 나노기술 개발력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, 미국과 일본, 독일, 한국이 나노기술 현황과 기술개발력 등 2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NT 주도국가로 랭크됐으며, 미국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일본이 바짝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.

한국이 나노기술 선두권에 진입한 것은 첨단기술제품 생산이 GDP(국내총생산)의 16%를 차지하고 있고 GDP의 3%를 R&D에 투자하는 등 정부와 민간부문의 높은 투자와 기술 개발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.

과기부는 "나노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연구개발 및 인프라 확충에 전력해온 끝에 2001년 미국의 25% 수준이던 NT 수준이 2004년에는 약 62%로 향상됐다"고 강조했다.

과기부는 현재의 나노기술 수준을 2015년까지 세계 3위권으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새로운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5/11/22>

Copyright ⓒ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